

일본, 그린자동차 소재 개발 본격화

Fuji Electronics, 파워반도체 주력 ... Showa Denko는 탄소 전극소재

일본의 Fuji Electronics와 Showa Denko 등 석유화학, 중전기, 전기기업들이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용 신소재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.

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, 신소재의 개발은 친환경 자동차의 가격을 낮추고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반도체와 전지 개발이 진전되면 세계 친환경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Fuji Electronics는 독립 행정법인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와 공동으로 전지의 전류와 전압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파워반도체를 개발할 계획이다.

디지털가전용 전자부품 사업이 부진한 가운데 파워반도체 등 친환경 자동차용 부품을 신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전략이다.

석유화학기업인 Showa Denko은 탄소소재를 사용해 환경차용 전극소재를 양산함으로써 한국 등 해외 자동차기업을 공략할 방침이다.

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심장부인 리튬전지 분야에서는 도요타(Toyota)가 파나소닉(panasonic), 닛산자동차(Nissan Motor)가 NEC와 각각 손잡고 비용 절감을 위한 대체소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20>